

영생을 받는 길

우리는 롬 2 장 7 절을 가지고 영생과 불사성에 대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공부로서 영생을 어떻게 받는가에 대해, 영생을 받고 난 후의 결과에 대해 공부를 하겠습니다.

로마서 6 : 23 죄의 값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23 For the wages of sin is death; but the gift of God is eternal life through Jesus Christ our Lord.

저는 얼마 전에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그 교회에서 오랫동안 봉사하신, 나이가 지긋하신 권사님께 물었습니다.

“권사님 영생을 받으신 확신이 있으세요?”

그러나 그 권사님이 목사님의 손을 덥석 붙잡으시며 이렇게 답하시더랍니다.

“사실 나는 그 확신이 없어요.”

당황한 것은 목사님이었습니다.

“아니 이렇게 오랜 동안 교회에서 봉사도 하시고, 모범이 되셨던 분이 그 확신도 없다니----.”

여러분!

이 권사님의 고백이 권사님 한 분만의 고백입니까?

오늘 날 교회안에는 이런 분이 무지 무지하게 많습니다.

저는 교회에 오래 다니신 분이 영생을 받은 확신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구원을 받지 못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영생을 받았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건 없건 간에, 확실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구원을 받은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확실히 되어 있는 사람은 영생을 받았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건 안하건 간에 천국에 들어 갑니다.

그렇지만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았기 때문에 영생의 확신을 가지지 못한 사람은, 오늘 공부를 통해 영생을 받았다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영생이 우리 안에 있음을 확신할 수 있는가?

영생이 어떻게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는가를 알면 대답은 간단해집니다.

1. 성령은 영생을 가지고 계시다.
2. 성령은 우리 안에 들어 오셨다.
3.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안에서 영생을 가졌다.

우리는 위의 논증의 각 항목에 대해 공부를 하기 전에, 먼저 영생이 우리 안에 계신 것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서부터 공부를 해 보십시오.

I. 영생이 우리 안 계심에 대한 잘못된 이해

영생이 우리 안에 계심을 믿어야 하지만, 영생의 내주에 대한 잘못된 이해도 경계해야 합니다. 제일 먼저 생긴 잘못된 견해는 하나님의 신성이 우리 안에 유출되어 들어 왔다는 오해입니다. 하나님의 신성이 우리 안에 유출되어 들어 왔다고 주장하는 것이 마니교(Manichaeism)입니다. 마니교는 A.D. 3 세기에 지금의 이라크에서 일어난 유대적 이단 기독교의 하나입니다. 칼빈은 이것을 해괴하고 망측한 소리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날도 이와 비슷한 해괴하고 망측한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음에 잘못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생의 한 부분이 우리 안에 부분적으로 거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수많은 사람이 영생을 부분적으로 나누어 가진 것으로 잘못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기독교인들이 잘못 생각하는 것으로, 영생을 우리가 본래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명 외에 제 2의 다른 독자적인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영생을 우리가 가진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영생을 가지고 우리 안에 들어 온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영생을 가지고 있습니다.

(칼빈은 우리 안에 거하는 영생을 본질(essence)이 거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질(quality)적인 면을 설명하는 것으로 이라고 했습니다¹. 칼빈은 영생을 하나님이 부여하신 형상의 한 부분으로 보는 것입니다.)

¹ . All these things one must attribute to God's nature, if we understand the soul to be from God's essence, or to be a secret inflowing of divinity. Who would not shudder at this monstrous thing? Indeed, Paul truly quotes Aratus that we are God's offspring [Acts 17:28], **but in quality, not in essence**, inasmuch as he, indeed, adorned us with divine gifts.

Yet I now consider it sufficiently proved that whatever has to do with spiritual and eternal life is included under 'image', mention of which has been made. John confirms this same point in other words, declaring that the life which was from the beginning in God's Eternal Word was the light of men [John1:4].

다음에 신학계 안에 있는 영생에 대한 오류를 지적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1 : 25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이니 하신 말씀은 예수님 자신이 영생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영생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영생을 따로 떼어서 생각할 수 없다는말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5 : 20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지요 영생이시라

And we know that the Son of God is come, and hath given us an understanding, that we may
know him that is true, and we are in him that is true, even in his Son Jesus Christ. This is the
true God, and eternal life.

예수님이 영생 그 자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영생은 예수님과 떼어서 생각할 수 없고, 예수님과 떼어서
받을 수도 없고, 신인이신 중보자 예수님을 믿지 않고서는 받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생을 미움이 아닌 행위를 통해서 약속되었다고 주장하면 그것은 오류가 있는 것입니다(갈 3 : 12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 ---). 창세전부터 영생은 선택에 의해 믿음으로 받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II. 성령은 영생을 가지고 계시다.

성령님이 영생을 가지고 계신 이유는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영생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의 영인 성령님은 영생을 가지고 계신 것은 당연합니다.

성령님이 영생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알기 위해, 먼저 예수님이 영생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부터 공부를
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서는 당신의 영원한 생명을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5 : 26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Because it is said that God breathed the breath of life upon man's face[<010207>Genesis 2:7], they thought the soul to be a
derivative of God's substance, as if some portion of immeasurable divinity had flowed into man.

John 5:26 (KJV)

²⁶For as the Father hath life in himself; so hath he given to the Son to have life in himself;

그래서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은 영생을 가지고 계십니다.

다음에 우리는 성령님과 예수님은 같은 분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4 : 19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음이라

John 14:19

Yet a little while, and the world seeth me no more; but ye see me: because I live, ye shall live also.

이 구절에서 “나를 다시 보지 못할 터이로되”의 나는 누구입니까?

육신으로 땅위에 계신 예수님을 말합니다.

“너희는 나를 보리니”에서 나는 누구입니까?

성령으로 다시 오신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땅위에 계신 당신과, 성령으로 오신 그분을 같은 나로 표시합니다. 같은 분이라는 뜻입니다.

성령과 예수님은 같은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육신으로 오신 보혜사이고, 성령님은 예수님이 영으로 오신 보혜사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예수님이 가지신 영생을 그대로 가지고 계십니다.

갈라디아서 6 : 8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Galatians 6:8 (NKJV)

⁸For he who sows to his flesh will of the flesh reap corruption, but he who sows to the Spirit will of the Spirit reap everlasting life.

성령님은 예수님이 가지신 영생을 그대로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됩니다.

III. 성령은 영생을 가지시고 우리 안에 들어 오셨다.

어떻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 오시게 됩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우리 마음에 영접할 때 예수님은 우리 안에 들어와 거하시게 됩니다.

이것에 대해 의심하는 사람은 없을 터이지만, 성경으로 확인하면,

요한복음 1 : 12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과 성령님은 같은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하는 것은 성령님을 영접했다고 하는
말과 같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주님으로 우리 마음에 영접할 때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십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영접할 때 영생을 가지고 우리 안에 들어 오십니다.

성령님은 영생을 가지시고 우리 마음 안에 들어 오십니다.

고린도후서 1 : 22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1:22 Who hath also sealed us, and given the earnest of the Spirit in our hearts².

우리의 마음 안에 성령이 들어 오시니 우리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 : 16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이 계시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4 : 6 너희가 아들인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는 아들의 영이 예수님의 영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 안에는 아들의 영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인하여 성령을 받은 사람은 성령 안에서 영생을 자기 안에 가지고 있습니다.

4. 그러므로 우리 안에는 영생이 있다.

요한복음 3 : 36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². kar-dee'-ah; prol. from a prim. 2595, (Lat. cor, "heart"); the heart, i.e. (fig.) the thoughts or feelings (mind); also (by anal.) the middle: - (/ broken-) heart (-ed)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 구절에서 ‘**아들을 믿는 자**’라는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자’를 말합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믿는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믿는 자는 영생이 자기 안에 있다는 말입니다.

영생은 행위가 아닌, 믿음에 의해, 하나님의 은사로 받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영생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요한복음 3 : 14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요한복음 3 : 15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3 : 16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믿는 자는 성령께서 영생을 가지고 자기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영생이 자기 안에 있다는 말입니다.

요한일서 5 : 12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 구절에서 ‘**아들이 있는 자**’라는 말은, ‘예수님이 자기의 마음에 있는 자’를 말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믿음이 자기의 마음에 있는 자’를 말합니다. 이렇게 믿는 자는 영생이 자기 안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믿고 계신 분은, 오늘 부터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인 영생이 자신 안에 있음을 믿고 사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신인이신 중보자로 믿고 계신 분은, 오늘 부터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인 영생이 자신 안에 있음을 믿고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을 믿는 자는 성령님 안에서 영생을 가지고 있다(롬 6:23).

IV. 영생이 들어 오시고 난 후의 결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인 영생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된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것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게 영생을 가져다 주는 성령이 자기 안에 없으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로마서 8 : 9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9] But ye are not in the flesh, but in the Spirit, if so be that the Spirit of God dwell in you. Now if any man have not the Spirit of Christ, he is none of his.

성령님은 영생을 가지시고 우리 마음 안에 들어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확정시킵니다.

고린도후서 1 : 22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1:22 Who hath also sealed us, and given the earnest of the Spirit in our hearts³.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영생을 가진 사람은 성령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시키십니다.

따라서 견인 교리는 영생에 의해 확실시됩니다. 견인교리를 부정하고, 위기의 순간 믿음을 선택함으로 그 때 마다 칭의를 얻어 간다고 하는 신정통주의는 정통신학적 입장에서 볼 때 받아 들일 수 없습니다.

³. kar-dee'-ah; prol. from a prim. 2595, (Lat. cor, "heart"); the heart, i.e. (fig.) the thoughts or feelings (mind); also (by anal.) the middle: - (/ broken-) heart (-ed)